

Copilot Studio 2026 총정리
Power Platform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5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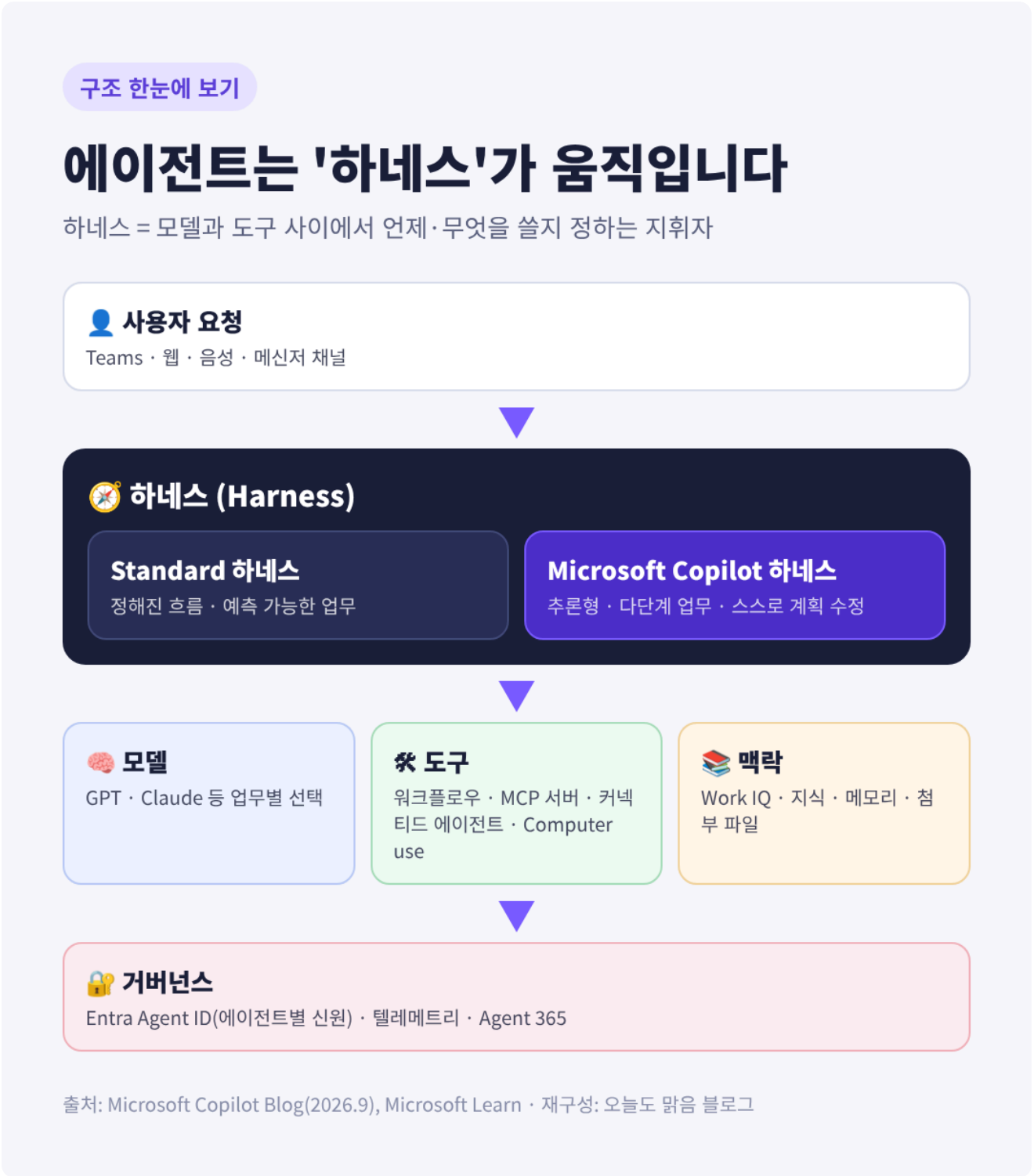
윤재웅 · DX 기획 · 2026.11.08 · Microsoft 공식 발표·문서 기준 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의 Copilot Studio는 더 이상 챗봇 빌더가 아닙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업무 시스템을 직접 조작하고, 회사의 보안 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일하는 에이전트' 플랫폼**이 됐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하네스(Harness)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 새 워크플로우와 Computer use로 달라진 자동화 방식
- 에이전트 보안·거버넌스의 핵심, Entra Agent ID
- 크레딧 과금 구조와 비용 관리 팁

① 하네스(Harness): 에이전트의 '지휘자'가 생겼다



하네스는 AI 모델과 에이전트 사이에서 언제 모델을 부를지, 어떤 맥락을 줄지, 어떤 도구를 쓸지를 결정하는 계층입니다.

- **Standard 하네스**: 정해진 흐름대로 움직이는, 예측 가능한 업무에 적합
- **Microsoft Copilot 하네스**: 목표를 주면 스스로 단계를 계획하고 경로를 바꾸는 추론형 업무에 적합

예를 들어 매입 담당 에이전트가 송장을 읽고, 구매 주문과 대조하고, 빠진 정보를 모으고, 예외 건만 승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Word·Excel·PowerPoint·PDF 파일을 직접 만들고 수정하며, 각 작업은 보안 샌드박스에서 실행됩니다.

> 이 하네스는 'GitHub Copilot 하네스'라는 이름으로 2026년 9월 정식 출시(GA)됐고, 이후 'Microsoft Copilot 하네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② 새 워크플로우 + Computer use: 자동화의 경계가 사라졌다

2026년 5월 **Computer use가 정식 출시**되어, 에이전트가 API가 없는 프로그램도 화면을 보고 클릭하며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캔버스형 워크플로우 디자이너**가 공개되어 드래그 방식 구성, 노드 단위 테스트, 버전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정해진 규칙대로 돌아야 하는 부분 → 워크플로우(결정적 자동화)
- 판단이 필요한 부분 → 에이전트
- 워크플로우 안에서 에이전트를 하나의 단계로 호출해 둘을 섞어 쓸 수 있음

기존 Power Automate 클라우드 흐름은 그대로 백그라운드 자동화의 중심이고, 새 워크플로우는 에이전트와 엮이는 부분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③ 에이전트도 '사원증'을 받는다: Entra Agent ID

2026년 7월부터 Copilot Studio는 새로 만드는 모든 에이전트에 Microsoft Entra Agent ID를 자동 발급합니다. 에이전트마다 고유 신원을 받아 에이전트 단위로 접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Application Insights로 내보내는 환경 단위 텔레메트리(프리뷰), MCP 서버 인증 제도도 추가됐습니다.

④ 더 똑똑해진 맥락: Skills · 메모리 · Work IQ

2026 업데이트 타임라인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식 월간 업데이트 기준 주요 흐름

3월	**멀티에이전트 기능 GA 시작** Prompt Builder 정식 출시
5월	**Computer use GA** 새 워크플로우 디자이너(캔버스형) 공개
7월	**Entra Agent ID 자동 발급** 새 에이전트마다 고유 신원 생성
8~9월	**GitHub Copilot 하네스 GA** Skills · 메모리 · Work IQ(프리뷰)
10월	**지속형(persistent) 에이전트** 고객 대화용 하네스 발표

※ GitHub Copilot 하네스는 이후 'Microsoft Copilot 하네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기능별 GA·프리뷰 상태는 테넌트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Microsoft Copilot Blog 월간 업데이트(2026.3~11) · 재구성: 오늘도 맑음 블로그

- **Skills**: 업무 지침을 모듈로 묶어 여러 에이전트에 재사용·공유
- **메모리(프리뷰)**: 사용자별 선호와 패턴을 기억해 다음 대화에 반영
- **Work IQ(프리뷰)**: 메일·일정·파일·Teams 메시지 등 조직의 업무 맥락에 연결
- **커넥티드 에이전트(프리뷰)**: 메인 에이전트가 전문 에이전트에게 일을 나눠 맡김

⑤ 비용은 '크레딧'으로: 파일럿 전에 꼭 계산하세요

비용 구조

사용자 수가 아니라 '크레딧'으로 계산합니다

Copilot Studio는 테넌트 단위 크레딧 소비형 과금

선불 용량 팩

$200/월

25,000 크레딧

종량제(PAYG)

$0.01

크레딧당, 월말 후불

💡 같은 질문도 비용이 다릅니다

지식 검색(그라운딩) + 생성 답변 + 추론을 켜면
응답 1건의 크레딧이 수 배~수십 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 파일럿 단계에서 **사용량 추정기**로 미리 계산하세요.

출처: Microsoft Copilot Studio Licensing Guide(2026) · 정가(USD) 기준, 계약 형태에 따라 상이

Copilot Studio는 사용자 수가 아니라 테넌트 단위 크레딧 소비 방식입니다. 선불 용량 팩은 월 $200에 25,000 크레딧, 종량제는 크레딧당 $0.01(월말 후불)입니다. 지식 검색·생성 답변·추론을 켤수록 응답 1건당 크레딧이 늘어나므로, 파일럿 전에 **에이전트 사용량 추정기**로 예상 비용을 계산해 두세요.

가격은 미국 달러 정가 기준이며, 기업 계약(EA/CSP) 형태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입 전 체크리스트

- ☐ 반복적이고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업무 1~2개를 골랐는가
- ☐ 업무 흐름의 '규칙'과 '판단' 부분을 나눴는가 (워크플로우 vs 에이전트)
- ☐ Standard와 Copilot 하네스 중 무엇이 맞는가

- ☐ 에이전트 권한과 데이터 접근 범위를 IT·보안 부서와 합의했는가
- ☐ 사용량 추정기로 월 예상 크레딧을 계산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Power Automate 라이선스가 있으면 Copilot Studio도 쓸 수 있나요?

별개입니다. 기존 클라우드 흐름은 Power Automate 라이선스로 돌지만, Copilot Studio의 에이전트와 워크플로우는 Copilot 크레딧을 소비합니다.

Q. 프리뷰 기능을 업무에 써도 되나요?

테스트용으로는 좋지만, 운영 업무는 정식 출시(GA)된 기능 위주로 설계하는 것을 권합니다.

Q. 코딩을 못해도 만들 수 있나요?

네. 자연어로 에이전트 초안을 만들고 워크플로우도 드래그로 구성합니다. 다만 사내 시스템 연결과 권한 설계는 IT 담당자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2026년의 Copilot Studio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만드는 도구에서 맡기는 플랫폼으로"**입니다. 이제 질문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나"에서 "우리 조직은 어떤 일을 맡길 준비가 됐나"로 바뀌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 Microsoft Copilot Blog, "New and improved: GitHub Copilot harness, agent skills, and richer context"(2026.9) · Microsoft Copilot Blog, Copilot Studio 월간 업데이트(2026.3~11) · Microsoft Copilot Studio Licensing Guide(2026) · Microsoft Learn, Copilot Studio 문서